

# 결혼...동거... '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 이단 결혼·동거 발표...커플 사진도 당당히 공개 일부 팬 시선 달라졌지만 인기 타격 여전한 현실

"저희 오늘부터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룹 엠블랙 출신 지오는 지난 17일 연인인 배우 최예슬과 '오에커플 중대 발표'란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이같이 알렸다. 지난해 1월 SNS에서 교제를 밝힌 두 사람이 함께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오에커플 스토리'를 통해서다.



동거를 발표한 최예슬과 지오

최예슬은 "2019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동거였다"면서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지오도 "결혼을 생각하는 저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견해와 가치관에 따라 저희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 결혼했고, 그룹 유니스 일라이가 같은 해 혼인신고를 하고서 3년 뒤 화촉을 밝혔다.

SNS에선 팬들 몰래하는 '럽스타그램' 대신 애정을 당당히 표현하는 커플도 나왔다. 지난해 교제 사실을 솔직하게 밝힌 가수 현아와 그룹 펜타곤 출신 이던은 각종 패션지 화보와 일상 사진에서 입맞춤을 하고 포옹하는 등 스킨십을 과감히 보여줬다.

결그룹 에프엑스 출신 설리도 연인과 교제하면서 자유분방한 모습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곤 했다.

'열애'에도 민감하던 아이돌 사생활의 불문율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이돌 업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련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갈린다.

첫 사례는 2013년 1월 결혼해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민 걸그룹 윈드걸즈 선예였다. 2년 뒤 뒤를 공식 탈퇴한 그는 이달 셋째 출산을 알렸다.

21년 경력의 한 기획사 대표는 "결혼과 동거는 아이돌과 매칭되지 않았기에 달라진 세대에 대한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열애설만 때도 악플로 뒤덮였던 때와 달리 결혼 기사의 응원 댓글을 보면, 아이돌 개인의 삶과 가치관을 인정해주는

그로 인해 기획사들은 주로 10대에 데뷔하는 아이돌 가수의 건강한 활동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사생활을 케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2009년 공적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연예인에 대한 인권 침해 조항들이 삭제됐고 과거보다 사생활 영역이 인정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나름의 규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 10개 도시에서 33회에 걸쳐 공연했다. 마지막 순서였던 오사카 공연에서 멤버들은 풍성한 라이브와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화려한 무대효과로 눈 뿜 수 없는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속 계약서에는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가수의 동의하에 일정 시점까지 '연애 금지',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흡연 금지' 등 규칙을 정해놓는 기획사들은 다수다.

아이콘의 바비는 지난해 MBC TV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연애 금지도 있고 속소도 있다"가 집 앞 편의점에 갈 때 보고한다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안 된다"고 속소사 내부 규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몇몇 걸그룹 멤버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연애 금지"가 해제됐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9년 1월 결혼해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민 걸그룹 윈드걸즈 선예였다. 2년 뒤 뒤를 공식 탈퇴한 그는 이달 셋째 출산을 알렸다. 또 그룹 슈퍼주니어 성민이 2014



엑소 카이와 블랙핑크 제니

측면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오와 최예슬의 동거 발표 영상 댓글에는 '축하한다', '용기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낸다'는 응원 글부터 동거 경험에서 나온 조언 글이 수백개 올라왔다.

지난 1일 그룹 엑소의 카이와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열애 소식이 새해 벽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을 때도, 둘의 비밀 데이트를 카메라에 담은 인터넷 매체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기획사들은 예전보다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진 것은 분명해. 인기 예능에 타격이 큰 것은 여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13년 경력의 또 다른 기획사 홍보실장은 "아이돌의 열애 소식만으로도 엠블랙과 공연 매출에 영향을 있다"면서 "연습생 시절 트레이닝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병행하고, 심지어 남녀 연습생 식사 시간을 따로 정해놓기도 한다. 나름의 불문율을 깨는 행동에 대한 격정 어린 시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1년 경력의 한 기획사 대표는 "결혼과 동거는 아이돌과 매칭되지 않았기에 달라진 세대에 대한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열애설만 때도 악플로 뒤덮였던 때와 달리 결혼 기사의 응원 댓글을 보면, 아이돌 개인의 삶과 가치관을 인정해주는

그로 인해 기획사들은 주로 10대에 데뷔하는 아이돌 가수의 건강한 활동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사생활을 케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2009년 공적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연예인에 대한 인권 침해 조항들이 삭제됐고 과거보다 사생활 영역이 인정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나름의 규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 10개 도시에서 33회에 걸쳐 공연했다. 마지막 순서였던 오사카 공연에서 멤버들은 풍성한 라이브와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화려한 무대효과로 눈 뿜 수 없는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속 계약서에는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가수의 동의하에 일정 시점까지 '연애 금지',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흡연 금지' 등 규칙을 정해놓는 기획사들은 다수다.

아이콘의 바비는 지난해 MBC TV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연애 금지도 있고 속소도 있다"가 집 앞 편의점에 갈 때 보고한다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안 된다"고 속소사 내부 규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몇몇 걸그룹 멤버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연애 금지"가 해제됐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8년 1월 결혼해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민 걸그룹 윈드걸즈 선예였다. 2년 뒤 뒤를 공식 탈퇴한 그는 이달 셋째 출산을 알렸다. 또 그룹 슈퍼주니어 성민이 2014

## 이나영 "경단녀 절실함 느껴져요"

###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 9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



"경단녀(경력단절 여성)가 나오는 프로그램 방송에서 보고 이분들의 절실함을 많이 느껴요."

21일 오후 서울서 강남구 논현동 호텔 임피리얼팰리스에서 열린 tvN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이하 '별책부록')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이나영(40·사진)은 자신의 처지와 극 중 경단녀 '강단이'의 처지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면서도 출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공감을 표했다.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 '아일랜드' 등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한 이나영은 tvN 주말극 '별책부록'에서 고스펙의 경력 단절 여성 강단이를 연기한다.

톱스타 원빈(42)의 배우자면서 9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하는 이나영인 만큼 이날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의 관심은 그에게 집중됐다.

이아 "드라마가 오랜만이지만 하지만 역시 현장은 항상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며 수줍게 웃었다.

이나영은 "별책부록" 1·2부 대본을 보게

오는데 많은 것이 담겨 있었고 영화같이 잘 짜여 있었다.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 그 욕심이 났다"고 출연 배경을 밝혔다.

이나영은 "별책부록" 1·2부 대본을 보게 오는 26일 밤 9시 첫 방송. /연합뉴스

## 동방신기, 일본 투어 화려한 피날레...68만명 동원

그들 동방신기(유노윤호, 최강장민)가 일본 투어에서 총 68만 관객을 동원했다.



동방신기 오사카 공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가 지난 18~20일 오사카 교세라몰에서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8 투모로우'(東方神起LIVE TOUR 2018-TOMORROW)를 매듭지었다고 21일 밝혔다.

·해의 가수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동방신기는 오는 3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동방신기 콘서트 -서클- #웰컴'(TVXQ! CONCERT -CIRCLE- #welcome) 앙코르 콘서트로 국내 팬들과 만난다. /연합뉴스

이들은 일본 10개 도시에서 33회에 걸쳐 공연했다. 마지막 순서였던 오사카 공연에서 멤버들은 풍성한 라이브와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화려한 무대효과로 눈 뿜 수 없는 볼거리를 선사했다.

동방신기는 지난해 일본 넷이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2018년 콘서트 동원력 랭킹" 1위에 올랐다. 작년 동방신기 일본 공연에 운집한 관객은 128만명으로, 현지

##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노닐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5 앙코르 MBC 스페셜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번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재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니우스 5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뽀보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경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삼청동 외할머니(재)	15 차중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순집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경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동네번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55 300회 특집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동네번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00 나쁜형사	00 복수가 돌아왔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시사기획 씬(재)	10 불불간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5 KBS 뉴스 45 KBS 결작 다큐멘터리(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 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엄마를 찾지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겨울, 타이완 2부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우수 진면)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겨울, 고수를 만나다 2부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대왕문어를 찾아서)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5 조식포함 아파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명 유치원1~2	23:55 엄마를 찾지마(재)
<명란전골과 코다리 양념구이>	17:15 마사와 곰	24:50 한국영화특선 <공범>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2일(음 12월 17일 己未)

<p>36년생 성급하게 처리하려 한다면 오히려 화근을 낳으리라. 48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60년생 화사한 봄날이 찾아드는 이치이다. 72년생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84년생 요령 있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정리한다. 행운의 숫자 : 95, 04</p>	<p>42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보인다. 54년생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66년생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가까스로 해결 된다. 78년생 배려하다보면 얻는 바가 많다. 90년생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아직 이르다. 행운의 숫자 : 27, 78</p>
<p>37년생 관리를 잘 하자. 49년생 무리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61년생 자신이 발인한 바는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73년생 여파가 대단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나서자. 85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 된다. 행운의 숫자 : 03, 43</p>	<p>43년생 치우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55년생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기회가 와도 취할 수 없다. 67년생 연기가 될 수도 있어야겠다. 79년생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들이킬 수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2, 28</p>
<p>38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50년생 중차대한 때에 번잡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62년생 겁모습만 달리고 있을 뿐 내면은 차이가 없다. 74년생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86년생 본질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2, 60</p>	<p>44년생 형식을 멀리하고 실사구시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56년생 애타게 기다릴 일이 있다. 68년생 이론과 실제 현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자. 80년생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들이킬 수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2, 28</p>
<p>39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 이해할 수 있다. 51년생 지인의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63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75년생 완벽하게 처리해야 뒤따라 없을 것이다. 87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대미문의 형태로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05, 75</p>	<p>45년생 변화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옳다. 57년생 불가능하다면 미련을 버려야 한다. 69년생 모두가 도음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81년생 돌발적인 변수의 상황까지 예견해야 하느니라. 93년생 폭풍 속에서 폭우가 쏟아짐에 비유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90, 42</p>
<p>40년생 발다른 성과가 없는 하루다. 52년생 걸음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64년생 쓸모없다고 여겨왔던 것이 오히려 이롭다. 76년생 밤심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88년생 끝이 상거울 수도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02, 55</p>	<p>34년생 활발하게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46년생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58년생 오르막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리막길에 이르는 법이다. 70년생 쾌도난마 해야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82년생 흠속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9, 14</p>
<p>41년생 평소 애드레날린 기분이 되어 왔던 바가 흔들릴 수 있는 운세이다. 53년생 전혀 드러나지 않은 체 영향력이 행사 되고 있다. 65년생 실수로 인한 피해가 크다. 77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다. 89년생 함께 한다면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4, 16</p>	<p>35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47년생 탄력이 없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59년생 행편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함이 낫다. 71년생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이익이다. 83년생 의사 표시가 정확해야만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74, 64</p>